

2022 년 3 월 20 일 “그리스도의 길(2) 치유와 회복”  
(마 9:35-38)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요약으로서 사역의 두 골자는 복음선포와 치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역에 동참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희망에 응하는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음 선포와 치유**

주님의 공생애의 핵심을 35-36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5 절 - 순회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36 절 -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공휼). 불쌍히 여김은 위기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물, 시간, 힘, 생명을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휼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까요?

그것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어떤 고난속에서도 희망과 확신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침 받은 자들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넘어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고난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이 담긴 새로운 길을 얻게 하는 것이 공휼을 가지신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2] 추수할 일꾼들의 소명**

주님은 일꾼을 보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예외 없이 상처받고 아픔이 많아서 오히려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역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자가 되시는 지 보겠습니다. 히 2:17-18 ‘...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약함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 사역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주님의 공휼, ‘불쌍히 여김’의 감정과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곤경을 당하면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휼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의 공휼의 진수를 만나고 더 깊은 차원의 공휼을 배워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휼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며 용서를 비시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2. 모든 사람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한계를 넘어 큰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의 곤경과 고통은 삶과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만 열리는 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축복을 더욱 명료하게 보고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난의 종류와 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지고 더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치유자로서 좀 더 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이 크고 빈번할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확실한 새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새 생명의 새 길을 걷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주님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발견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2. 주님의 사역에서 기본이 되는 성품을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품과 감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며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